

연예

14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3

방탄 출연 '선데이...' 일본해 표기 삭제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터뷰를 방송한 미국 CBS '선데이 모닝'이 화면 속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했다 삭제했다. CBS는 22일 관련 인터뷰에서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방탄소년단의 팬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CBS는 24일 이를 삭제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후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어섰다.

이영아-강은택, 5개월 만에 결별



연기자 이영아와 강은택이 결별했다. 지난해 11월 교제 중인 사실을 공개한 지 5개월 만이다.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24일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서 "결별 시거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연기자의 사생활 이어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서로 바쁜 일정 탓에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아와 강은택은 지난해 하반기 방송한 KBS 2TV 일일극 '끝까지 사랑'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울주산악영화제, 산악 주제 제작 지원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산악 관련 소재나 주제를 다룬 작품에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4일 "국내 산악영화 제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2020 울주 서밋'을 통해 산악 관련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단편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5 1966년작 이만희 감독의 '만추'

대사 대신 여백...한 편의 시를 닮은 영화

1919년 10월27일 '의리적 구토'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관객에게 선사해왔다. 당대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에게 한국영화 100년, 그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그 걸작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한다.



이만희 감독

"시적 감흥이 잔향처럼 머리 속에 남는 영화다."

이만희 감독의 영화 '만추'가 공개된 1966년 12월3일자 경향신문은 작품이 추구한 탁월한 영상미와 새로운 영화언어를 이렇게 표현했다. "스토리를 배제한 고도의 묘사를 시도한 영화"라며 "대화는 적어도 치밀한 연기와 인상적인 주제음악과 효과를 그리고 차가운 카메라로 영상을 피했다"고 평했다.

실제로 '만추'의 등장은 당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전환이나 다름없다. "줄거리 위주의 재래식 영화를 탈피했다"(동아일보 1966년 11월26일자)는 평가처럼 소설보다 시에 가까운 작품으로, 절명 대신 여백을 더한 미장센을 통해 주인공인 두 인물의 심리를 파고든다.

달리는 열차 안, 차창을 옆에 두고 마주앉은 두 남자가 있다. 밖의 풍경을 잠시 창을 열려는 헤림(문정숙)과 자꾸만 창을 닫으려는 남자(신성일). 헤림은 남편 살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범수다. 3일간 휴가를 얻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길이다.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듯한 남자는 우연히 헤림과 동행하게 되고, 이들은 감정에 끌려 며칠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1년이 지나고, 헤림은 재회를 약속한 장소에서 남자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가 왜 오지 못하는지 모른다.

1966년 완성된 '만추'는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감성에 그대로 빠져들 수 밖에 없게 하는 불멸의 힘을 지녔다. 영화가 나온 뒤 꾸준히 이뤄진 리메이크 시도는 이 작품의 상징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1975년 김기영 감독은 '육체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1981년 김수용 감독은 배우 김해자와 작업한 또 다른 '만추'를 내놓으면서 당대 관객과

1966년 영화 '만추'는 남녀 주인공의 심리를 영상으로 구현한 명작으로 꼽힌다. 이만희 감독이 연출하고 고 신성일(오른쪽)과 문정숙이 주연했다.

사진제공 | 한국영상자료원

감성을 공유했다. '만추'는 이만희 감독의 대표작인 동시에 그의 세계관이 분명히 녹아있는 작품이다. 1965년 영화 '7인의 여포'를 내놓고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다 잠시 귀향한 감독은 김지현 작가에게 '행무소에 오래 있던 여자가 세상에 나온다'는 설정을 공유하면서 '만추' 시나리오를 이끌었다. 당시 주로 전후 사회상을 담거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리는 이야기가 한국영화의 주를 이뤘다면 '만추'는 두 인물의 미묘한 심리를 영상 위주로 구현해 큰 놀라움을 안겼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만추'는 이만희 감독의 전설적 문체작"이라며 "리얼리즘적인 모더니스트이자 모더니즘적

인 리얼리스트로서 영화 장르나 연기, 연출 등 측면에서 경지를 일궈냈다"고 평했다. 김두호 평론가는 "그야말로 애정문제를 극한적으로 다뤄 인간이 얼마나 동물적인가를 보여준 작품"이라며 "만추"를 돌아봤다. 몇 차례 리메이크 가운데 단연 탁월한 완성도를 갖춘 영화는 2011년 김태용 감독의 '만추'이다. 현빈과 탕웨이 주연해 미국 시애틀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쳤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책상에 탕웨이의 사진을 붙여두고 집필했다'는 김태용 감독은 이 작품을 계기로 탕웨이와 사랑에 빠져 2014년 결혼했다.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로 기억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새털같은 가벼움! 끈을 묶고 푸는 번거로움이 없는 간편함!

콜마운틴 완전방수기능성워킹화 파격할인!

2019년 최신형 초경량 워킹화 소비자파격가! **198,000원** 택배비 무료 카드무이자

[24시간 주문가능 /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천연소가죽과 메쉬원단 사용으로 더욱 부드럽고 오래신을수 있습니다.

특허발명품 MTC공법으로 신발 굽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 일반 워킹화, 운동화보다 편안합니다.

MTC공법

특허 제 10-1035 380호

워킹화 신발 내부구조

- 갑피 UPPER
- 인솔 INSOLE
- 보드 BOARD
- 스프링 SPRING
- 미드솔 MIDSOLE
- 아웃솔 OUTSOLE

①스프링 원터치

미끄럼방지, 파일론이중창

②동산화원터치

③스프링 끈

※동산, 출, 퇴근용, 일할때, 외출할때 언제든지 신을수 있습니다.

※남녀공용 사이즈 :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mm

188,000원

24시간주문 / 택배비 무료 / 5개월 무이자 주문전화 **1899-6540** 계좌번호 : (기업) 104-091520-01-022 한국뉴미디어